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리더십 유효성과 영향요인

ROTC's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Its Influence Factors

황태남, 이정언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Tae-Nam Hwang(hwang6772896@hanmail.net), Jeong Eon Lee(jelee@pcu.ac.kr)

요약

장교 양성과정에서 ROTC의 전장리더십 역량과 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은 군의 전투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초급장교 리더십 영향요인에 주목하여 리더십 함양과 고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확인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리더십 유효성의 영향요인으로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 세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세 가지 영향요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리더십 유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는 ROTC와 야전에서 복무하고 있는 학군 초급장교 1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과 가설의 검증은 계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증자료의 분석결과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문성, 품성, 군인정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성, 책임감, 사명감을 고양시키는 교육담당자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군인정신 | 전문성 | 리더십 유효성 | 학군사관후보생 |

Abstract

Weapon,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 have been continually developed in the Korean military sinc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it is always asked to make a more effort on improving the ability of combat capability through people in order to achieve and maximize military power. In terms of improving the battlefield leadership, this research focused on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because the training junior officers lays a great foundation on basic strength of the military.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amined the ROTC's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mainly composed of four factors: personality, esprit de corps, and professionalism as independent variables; leadership effectiveness as a dependent variable. The empirical result revealed that esprit de corps, professionalism, and personality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leadership effectiveness. It is suggested that an ongo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of leadership for ROTC should be applied for achieving a better leadership effectiveness on the battlefield.

■ keyword : | Esprit de Corps | Professionalism | Leadership Effectiveness | ROTC |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6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6월 27일

수정일자 : 2016년 06월 27일

교신저자 : 이정언, e-mail : jelee@pcu.ac.kr

I. 서론

군 조직의 모든 활동은 국토를 적으로부터 방위하여 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이 행사되며 또한 조직에서는 이를 당연시 받아들인다. 군 조직은 가치, 명예, 규범의 중요성이 타 조직에서 비해 보다 강조됨으로써 내부적으로 높은 결속력을 유지한다. 군 조직은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이루는 가운데 상위계급은 권위를 인정받는다[1-6]. 계급에 부여된 권위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며, 일반 사회조직과는 달리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 부하의 생사,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군 조직은 계급에 따른 업무의 할당이 명확하고 강력한 위계적 권위구조를 지닌다. 군 조직의 상하관계는 연령, 학력 등과는 무관하게 계급에 의해 명백히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상의 활동은 자의적이거나 창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명령에 따른 역할 수행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조직의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솔선수범을 보이며 부하를 위한 희생을 중심으로 발현된다[4-8].

초급장교의 리더십은 병영 및 작전활동에서의 시형착오와 내·외적 환경에 효율적인 적응을 통해 발휘된다. 한편 초급장교가 야전에 부임하여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21개월까지 단축된 상황에서 초급장교가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군 조직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리더십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단기간 내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ROTC의 리더십 교육은 군의 기본전투력 향상과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9-13].

한편 ROTC의 리더십 교육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ROTC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리더십 교육이 임관 후

야전에서 기본전투력 발휘 및 향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단기간에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군사관후보생이 임관 후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장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여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군 조직의 리더십

군은 계급에 따른 업무의 할당이 명확하고 강력한 위계적 권위 구조를 지닌 조직이다. 군 조직은 지휘관을 정점으로 상하관계와 임무수행이 계급과 직책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 목표달성 과정이 개인의 능력이나 직책 등의 개별적 사항의 존중보다는 계급이 선행되는 특징을 지닌다[14-16]. 계급은 직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절대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위자는 상위계급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게 된다. 군은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목표와 이익 실현을 위해 성원들의 통일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는 집단이다[5][7]. 그러므로 군대의 훈련과 정신교육은 통일된 지휘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군 조직은 타 조직에 비해 신규 충원된 성원의 융합과 강력한 결속력의 함양을 위해 집단의식을 강조하게 된다[4][5][7].

군과 일반 사회에서의 리더십은 상이할 것이라는 일반적 사고로 인하여 리더십에 대한 정의 또한 상이하게 표현될 것이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두 조직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17-20]. 미 육군은 “임무를 완수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시킴으로써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리더십을 정의하였다. 캐나다 군은 “임무완수에 기여하는 역량을 개발 또는 향상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명령하고 동기부여 시키며 실현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리더십을 규정

하고 있다[4][5][7].

우리나라 군은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에서 리더십 교육을 해왔으며,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타 조직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육군은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해군은 “지휘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부대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하 부대 및 부하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감화시키고, 모든 노력을 부대목표에 집중시키는 기술”, 공군은 “공군 고유의 문화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 항공우주군 건설 및 운용을 위해 전 공군인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영향력 행사 과정”으로 리더십을 정의내리고 있다. 일견 외국군과 한국군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 측면에서 대별되는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된다. 즉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마찬가지로 ‘목표’, ‘팔로어’, ‘영향력’등의 요소가 해당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4][5][7].

2. 군 리더십 영향요인

군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자질은 올바른 품성과 투철한 군인정신, 탁월한 군사전문능력이다 [3][4][5][7][9][11][21]. 세 가지의 기본자질은 군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3][9]. 해당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군 조직의 리더는 자신을 역할을 발휘하여 조직과 구성원을 지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군 조직의 리더는 세 가지 자질을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4][5][7].

군 조직의 리더가 보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품성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됴됨이를 의미한다. 품성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구성원이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바른 품성을 갖추고 행동해야 리더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리더에게 필요한 품성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육군의 리더는 도덕성, 헌신, 존중, 주도성, 침착성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도덕성을 갖춘 리더는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구성원이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법정신, 정직, 청렴, 공정성이 요구된다 [3-5][7][21][22]. 본 연구에서는 군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품성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품성은 초급장교가 전장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인정신이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확고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군인정신은 임무수행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불확실성, 위험, 육체적 피로와 고통 등 각종 제한사항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군인정신의 함양은 명예, 충성,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을 보유함으로써 실현된다. 리더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명예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예란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자랑스러운 평판을 말한다. 충성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다는 대의명분,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여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헌신적 행동을 발현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성심은 군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용기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전우를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책임을 완수케 한다. 용기 있는 행동은 부하에게도 전이되어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리더의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은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잠재능력을 발휘케 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며, 악조건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 임전무퇴의 기상은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계산이나 논리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힘을 발휘케 한다[3-5][7][21][22]. 이상의 이론

적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군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군인정신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군인정신은 초급장교가 전장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사전문능력은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군사전문능력은 리더의 능력과 관련되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구성원과 부대를 이끌고 관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군사지식은 임무수행 절차와 방법, 제반원칙의 제공,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를 통해 전·평시 임무수행을 가능케 한다. 군사지식으로서 군사이론·교리는 전쟁 및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력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과학과 술(術)에 관한 지식을 포괄한다. 교리는 전·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상·하 전술관이 공유됨으로써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해진다[2][3][5][7][21]. 전투지휘 및 기술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력을 운용하고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리더는 군사전문가로서 군사지식에 정통하고 이를 전장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전투지휘를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전투기술은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전투수행방법이다. 리더는 신분이나 계급, 병과나 직책을 막론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투행동을 숙달해야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육체적 능력이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과 체력을 말한다. 육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건전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4][5][7][22]. 이상에 기술된 바와 같은 전문성은 군 리더십 유효성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전문성은 초급장교가 전장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실증연구

1. 연구모형

초급장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식별되었다. 선행연구의 논의에 근거하면, 이들 각 변인은 지휘자의 리더십 발휘와 그 유효성에 실질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품성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능케 하는 척도로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4][8][12][21]. 구성원이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바른 품성을 갖추고 행동해야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인정신은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이며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의 지침을 지도하는 규범적 행동원리이다[2][3]. 임무수행 환경이 주는 불확실성, 위험, 육체적 피로와 고통 등 각종 제한사항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군인정신은 전장 환경에서 성과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군사전문능력은 군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군사전문능력은 리더가 임무를 완수하고 구성원과 부대를 이끌고 관리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4][5][7][11].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군 리더십 교범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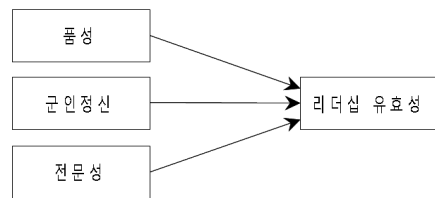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군 초급장교의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정의내리고 이에 따라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의 실증적 접근은 독립변수인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이 종속변수인 리더십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실증연구를 위한 변수의 측정은 설문지를 활용한 계량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군 리더십 야전교범에 제시된 리더십 자기진단 응답지를 개선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품성은 군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도덕성, 선입견의 배제, 수용성, 공정성, 침착성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5개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군 리더에게 요구되는 군인정신은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 명예, 충성, 용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5개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군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군사전문능력은 군사지식, 전투지휘 및 기술, 육체적 능력 등 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되었다. 리더십 발휘에 따른 유효성의 측정은 부하관리, 의사소통, 추진력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1. 변수의 측정 항목

변수	설문 구성
품성 (Person_1~5)	상황모면을 위한 정직성의 유지, 선입견과 편견의 배제, 의견 수용, 공정한 업무 처리, 우선순위 판단
군인정신 (Sprit_1~5)	임전무퇴, 국민보호, 전우애, 명령 수행, 책임감
전문성 (Prof_1~7)	군사이론/교리, 전문지식/기술, 전투력 운용, 전투기술, 상황판단력, 출신수범, 의사전달력
리더십 유효성 (Lead_1~6)	문제해결, 자긍심 고취, 분위기 조성, 능력개발 지원, 지도, 협조체계

설문지 배포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ROTC 103명과 야전에서 초급장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대장 및 참모 58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ROTC의 경우 3학년은 53명, 4학년은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간 표본의 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초급장교 역시 소대장 50명, 참모 4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지 회수 현황

ROTC			초급장교		
3학년	4학년	계	소대장	참모	계
53	50	103	50	40	90

수집된 자료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과 내용구성 타당성의 확인에 활용되었다. 변수의 내용구성과 관련하여 리더십 영향요인은 이론적 차원에서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리더십 영향요인은 세 가지 개념으로 추출되었으며, 전문성은 전체 변량의 9.83%, 군인정신 7.35%, 품성 5.77%를 설명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값으로 측정되었다. 리더십 유효성의 Cronbach's α 값은 .921, 전문성 .875, 군인정신 .874, 품성 .747로 나타나 각 변수들이 신뢰도 확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표 3.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	문항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리더십 유효성	LEAD_1	.842				.921
	LEAD_2	.801				
	LEAD_3	.786				
	LEAD_4	.785				
	LEAD_5	.736				
	LEAD_6	.709				
전문성	PROF_1	.794				.875
	PROF_2	.753				
	PROF_3	.741				
	PROF_4	.722				
	PROF_5	.686				
	PROF_6	.603				
	PROF_7	.568				
군인정신	SPRIT_1	.813				.874
	SPRIT_2	.788				
	SPRIT_3	.733				
	SPRIT_4	.725				
	SPRIT_5	.628				
품성	PERSON_1	.787				.747
	PERSON_2	.653				
	PERSON_3	.585				
	PERSON_4	.529				
	PERSON_5	.459				
변량		41.41	9.83	7.35	5.77	
누적 변량		41.41	51.24	58.60	64.37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영향요인(품성, 군인정신, 전문성)이 리더십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리더십 영향요인이 리더십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각 영향요인은 리더십 유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회귀식은 전체 변량의 약 46%를 설명하였다($F=44.393$ $p=.00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인 리더십 영향요인 가운데 품성은 리더십 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77$, $p=.000$),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군인정신 역시 리더십 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두 번째 가설 역시 채택되었다($\beta=.266$, $p=.000$). 세 번째, 전문성은 리더십 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3은 채택되었다($\beta=.297$, $p=.000$).

표 4. 가설검증: 리더십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변 수	β	Adj. R ²	F	Sig. F
품성 → 리더십 유효성	.277	.461	44.393	.000
군인정신 → 리더십 유효성	.266			
전문성 → 리더십 유효성	.297			

제시된 가설검증의 과정을 통해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각 영향요소는 크기는 전문성, 품성, 군인정신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병과나 직책에 따른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품성,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군인가치관 등의 마음가짐에 대한 역량과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증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전장리더십은 전장의 첨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장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전투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장교 양성과정에서 ROTC의 전장리더십 역량과 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은 군의 전투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9-11]. 본 연구는 초급장교 리더십 영향요인에 주목하여 리더십 함양과 고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

며, 이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확인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품성, 군인정신, 전문성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증연구는 ROTC와 야전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장교 153명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으며,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는 전문성, 품성, 군인정신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학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유추해보면, ROTC를 교육시키는 관계자들은 리더십이 충만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더불어 책임감, 사명감을 고양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후보생 및 초급장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수의 표본과 표본 집단으로 한정되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 우리 군 리더십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전투력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 리더십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근호, *군조직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머감각의 조절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2012.
- [2] 김진만, 최홍순, “군대윤리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군대윤리 개념 정립,”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pp.120-145, 2014.
- [3] 송하동, 최우재, “군 리더십 유형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리더십연구, 제4권, 제3호, pp.3-26, 2013.
- [4] 육군교육사령부, *2014년(제9회) 육군 리더십·상담 세미나*, 육군교육사령부, 2014.
- [5] 육군본부, *군인복무규율 길라잡이*, 육군본부, 2014.

[6] 최병순, *군 리더십: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북코리아, 2010.

[7] 육군리더십센터, *전장리더십*, 육군 리더십센터, 2011.

[8] 정광섭, *위관장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9] 권호산, 이동수, “육군 초급지휘관의 리더십 프로파일 분석: 경쟁가치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1호, pp.47-71, 2016.

[10] 김정수, *학군(ROTC)장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11] 정영제, 윤은성, “ROTC 후보생의 학년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변혁적 리더십 수준 및 관계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4, No.4, pp.185-209, 2011.

[12] 정지훈, *육군 초급 지휘관의 리더십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13] 황기석, *학생군사교육단 장교 양성과정 리더십 교육 향상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14] 김봉겸, *초급장교의 리더십 향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5] 김창주, 유명덕, 이원봉, 박균열, *병영문화와 인권친화리더십*, 한국학술정보, 2008.

[16] 박명진, *육군사관학교 리더십 교육체계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17] 이민수, *지휘통솔의 철학적 원리: 바람직한 리더의 윤리와 덕목*, 철학과현실사, 2010.

[18] 정영현, *리더와 리더십*, 한솜미디어, 2007.

[19] B. M. Bass, “Leadership: Good, better, best,” *Organizational Dynamics*, Vol.13, No.3, pp.26-40, 1985.

[20] R.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Y: Free Press, 1974.

[21] 김용주, 서춘식, 이창호, 김종태, “성공적인 초급 장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 한

국군사학논집, 제65권, 제2권, pp.195-215, 2009.

[22] B. J. Avolio and W. L. Gardner,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Getting to the root of positive forms of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6, No.3, pp.315-338, 2005.

저 자 소 개

황 태 남(Tae-Nam Hwang)

정회원



- 2016년 2월 :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
- 2014년 7월 ~ 현재 : 배재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군사학 교수

<관심분야> : 학생군사교육, 국방조직관리, 군 리더십

이 정 언(Jeong Eon Lee)

중신회원



- 2008년 4월 : 독일 하노버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박사)
- 1996년 3월 ~ 2001년 4월 :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 2010년 9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인사전략, 조직관리 전략, 리더십